

구술자료 상세목록 (구술개요 포함)

사업명	문화원 작성				
사업개요	문화원 작성				
구술자명	김태욱	성 별	남	출생연도	1949년
면담자	정지선	소 속	미추홀구 시민기록단	감독자	
면담장소	다사랑약국 (미추홀구 한나루로 379)		면담지원	표기자	
면담 일시	2024년 11 월 2 일		회 차	1	시 간 2시간 19분 3초
자료번호	문화원에서 작성하는 칸입니다.				
구술 개요	- 약국의 일반적인 상황 (주로 판매되는 약, 문 여는 시간, 문 닫는 시간 등) - 학익2동 신동아 아파트에서 30년 넘게 거주 - 고향은 작전동, 중·고등학교는 인천중과 제물포고 졸업 - 서울대 약학대학교에 입학했고, 졸업 후 1973년에 제약회사 한국바이엘약품에 입사해 카네스텐크림, 질정을 국내에 도입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 - 1978년 첫 약국 개국 - ‘달리는 인천 약사들’ 모임에서 가장 고령으로 마라톤 풀코스 그랜드 슬램을 달성 - 40년 이상 약국을 근속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시약사회로부터 감사패 받음 - 신문과 잡지에 기고한 글을 모아 2023년도에 ‘햇불처럼 소금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평생 문집 출판 - 약국에 오는 환자들에게 약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그것을 환자가 고마워하며 다시 찾아올 때 약사로서 보람을 느낌				
주요 색인어	다사랑약국, 정형외과, 소염진통제, 근육 이완제, 보호대, 근무 약사, 약국장, 의약분업, 미녹시딜, 고혈압약, 발모제, 신약 개발, 약포지, 약 주걱, 반자동 포장기, 복약지도, 위장장해, 마라톤, 그랜드 슬램, 달인약, 필드하키, 승학체육공원, 문학공원 주차장, 발 각질, 무좀, 카네스텐, 함춘약국, 미래 약국, 신기메디칼약국, 계양구 작전동, 계동국민학교, 인천 중학교, 제물포 고등학교, 경찰, 아버지, 창영동 자취,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부평시장, 제약회사, 프로젝트 매니저, 한국 바이엘, 아스피린 인스탄틴, 개국, 개국약사, 미아동, 오류동, 신동아아파트, 신현동, 산곡동, 부평, 현대백화점, 구월동, 주안 7동, 학익 1동, 예술작품전시, 첩부제, 파스, 편의점, 안전 상비약, 의약품, 의약외품, 신독, 간독, 평생 문집, 인천시약사회, 약사공론, 햇불, 소금, 인연주의자, 팬클럽, 기행문, 여행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시작 멘트	00:00:03	문화원에서 작성하는 칸입니다.
- 일시 및 연구진 소개	~ 00:00:40	
2. 근황 및 약국 환자의 유형	00:00:41	
- 약국 위층에 정형외과(학익정형외과)가 있어서 환자의 90% 이상이 정형외과 관련 환자임	~ 00:02:01	
3. 약국의 현황	00:02:02 ~ 00:10:14	
- 복약 지도를 상세하게 하다 보니 목 상태가 늘 좋지 않음 - 첩부제(파스)와 보호대에 대해서는 특히 자세히 설명해 줌 - 출근은 오전 9시, 퇴근은 오후 7시 반에 함(예전에 비하면 빨라진 편임) - 약국 약사는 걸보기보다 월 새 없이 일하는 편임 - 근무시간이 단축되었다고는 하나 조제 업무가 까다롭고 복잡하고 수많은 전문약 주문과 진열, 사용기한 점검 등 업무량이 많아져 늘 피로가 누적되고 있음 - 조제 업무가 80%고, 나머지는 일반약 판매임 - 의약분업 이후 새로 개발, 처방, 효과가 변경되는 전문약이 많아 연수 교육을 자주 받아야 하고 공부할 것이 매우 많음 - 의약분업 초기에 먹는 고혈압약으로 쓰던 미녹시딜이 현재는 바르는 탈모 방지제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약물 정보를 알아야 함		
4. 약국장의 일과	00:10:15 ~ 00:16:13	
- 출근하자마자 조제약 등을 준비하고 전문약과 일반약을 도매상과 제약회사에 주문하는 일을 함 - 하루 종일 조제와 판매를 마치고 나면 퇴근 전에는 주문, 반품, 처분할 약을 찾아내고 사용기한을 점검함 - 토요일에는 주로 약 진열 점검과 냉난방기 등 약국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 - 식사는 집에서 반찬을 가지고 오고 밥은 휴게실에서 직접 해 먹음 - 늘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다 보니 위가 약해졌음		
5. 마라톤을 시작해서 폴코스 그랜드 슬램 달성까지	00:16:14 ~ 00:30:32	
- 마라톤을 시작하기 전 상가 투자 실패로 불면증에 시달렸고 몸이 전체적으로 매우 쇠약해졌으나 2010년 마라톤 시작 후 건강을 점차 회복해 그 후 약국 업무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음 - 약사회, 미추홀구청 등에서 많은 사회활동을 해왔음		
6. 직접 지은 약국 이름의 의미	00:30:33 ~ 00:34:06	
- 현재의 다사랑약국은 16년 전 인수한 약국 이름이 좋아 그대로 사용했음 - 첫 약국 이름은 상록수약국이었고 이것도 인수한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음 - 세 번째로 개국한 함춘약국 이름은 직접 지었는데, 당시 서울대 약대가 있었던 교정의 함춘원(含春苑) 동산의 이름을 사용했음 - 네 번째 약국은 지금은 없어진 부평 현대백화점 내에서 해서 이름을 현대백화점약국으로 정했음 - 다섯 번째 약국은 2000년도에 시작해 새로운 천년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미래약국으로 지었음 - 여섯 번째는 신기시장에 개설한 신기메디칼약국이고 2009년 현재의 다사랑약국으로 이전함		
7.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	00:34:07 ~	

- 고향은 계양구 작전동(작전동 100번지) -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3남 1녀 - 믿머느리로 들어온 어머니, 경찰이셨던 아버지(부평경찰서 근무) - 어린 시절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음	00:41:31	
8. 아버지의 어깨를 한껏 올렸던 중·고교 시절		
- 당시 계동국민학교 수석 졸업 후 인천 중학교에 시험 봐서 입학 - 다른 형제들에 비해 아버지께서 막내였던 구술자에 대한 편애가 심했음 - 어린 시절 체구가 작아 통학을 힘들어해서 형제들과 창영동에서 자취를 함 - 부평 거리를 걷다가 아버지 지인들을 만나면 인천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라 자랑하셨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 - 학창 시절엔 내성적인 성격으로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나서는 일을 하지 못했음 - 여학생에게는 말도 걸지 못했음 - 중학교 때는 공부 시간에 열심히 듣고 시험 공부는 철저히 했음 - 고등학교 때는 하루 종일 공부만 했음	00:41:32 ~ 00:59:20	
9. 서울대 약학대학 입학 & 제약회사 입사		
- 부평의 수보당 약국을 운영했던 같은 중, 고등, 대학교 선배의 영향을 받아 약학대학에 입학 - 당시 서울대 약대생들의 진로는 주로 제약회사였고 약국 개설은 입에도 담지 않았으며, 약사고시에도 거의 관심이 없었음 - 약대 졸업 후 한국바이엘 약품이라는 제약회사에 수석으로 입사해 마케팅을 하면서 PM으로 독일 바이엘의 무좀약 카네스텐크림과 질정을 국내에 도입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음	00:59:21 ~ 01:16:33	
10. 개국약사가 되기까지		
- 한국바이엘약품 등 다니던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하면서 퇴직 후 1978년 처음 개국함 - 서울(미아동, 오류동)과 인천(신현동, 산곡동, 구월동, 주안 7동, 학익 1동)에서 약국을 운영함 - 구월동에서는 약국 운영이 잘 됐으나 주안 7동에서는 같은 건물에 들어온 내과가 폐원하면서 약국 운영이 매우 어려워졌고 5년 후 현재의 다사랑약국으로 이전 개업하였음	01:16:34 ~ 01:21:26	
11. 나의 사랑하는 가족		
- 첫 살림집이었던 수유동 - 자녀는 1남 1녀 - 자녀는 대부분 인천에서 성장함 - 큰 애가 중학생, 작은 애가 초등학생일 때 학익 2동 신동아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 옴	01:21:27 ~ 01:25:14	
12. 약 진열에 대한 약국장님만의 철학		
- 다른 약국과는 다르게 약국 내부 진열대를 꾸미는 이유 - 약을 환자가 선택하면 오남용이 되기 쉬워 원칙적으로 약사가 선택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굳은 신념이 있어 일반약은 외부에 진열하지 않고 있음 - 다양한 종류의 파스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설명하고 판매함 - 진열장에는 약뿐만 아니라 사진, 그림, 서각 등 예술 작품들을 전시해 놓음 - 작품을 전시하는 이유는 방문하는 환자들이 보고 즐기길 원해서임	01:25:15 ~ 01:33:00	
13. 다양한 유형의 환자들		
- 약사의 설명을 안 듣고 약을 사가는 환자를 보면 기분이 매우 언짢음 - 전화기를 들고 통화하면서 약을 사거나 처방전을 내놓고 조제하러	01:33:01 ~ 01:44:14	

은 사람은 매우 예의가 없다고 보아 친절한 설명을 생략함 - 파스에 대해 5년간 연구해서 환자들에게 직접 붙이는 시범까지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본 환자들이 고맙다고, 다음에 와서 효과를 봤다고 하는 그때가 가장 보람됨 - 부평 현대백화점에서 약국을 운영할 때는 조제, 판매하기가 너무 바빠 지금처럼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하기가 어려웠음		
14. 편의점 판매 약에 대한 생각		
-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약은 의약품이므로 절대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상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됨 - 편의점 판매약 중 타이레놀의 경우 간장해를 일으키고 대량 복용시 환각작용을 일으키기도 하고 오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나라 같이 약국이 많은 나라에서 이 제도는 폐지가 마땅함 - 편의점에서는 약의 판매량 제한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는 아르바이트생이 판매를 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음		01:44:14 ~ 01:51:42
15. 내 인생의 전성기 그리고 평생 문집		
- 업무 영역으로 보면 다사랑약국으로 이전 후 현재까지가 전성기라고 생각함 - 근래 5년간 연구해 온 첩부제(파스)에 대해 실무에서 이론까지 체계적인 강의를 완성한 것은 약학계 최초라는 점에서 내 인생 그리고 임상약학 면에서 매우 값어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함 - 평생 문집은 평생 발표한 칼럼과 기행문, 수필 그리고 약학, 약국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 놓은 책임 - 힘들었던 기억에 밤에 밀려오는 파도를 생각하며 호를 ‘흑파(黑波, 검은 파도)’로 지었음		01:51:43 ~ 02:12:52
16.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인터뷰 소회		
- 약국 운영 50년을 채우고 은퇴할 계획 - 가까운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먼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편임 - 은퇴 후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도 하고 싶음		02:12:53 ~ 02:18:58
공개여부	☐ 전체 공개 ☐ 전체 비공개 ☐ 부분 공개	
활용동의	☐ 동의함 ☐ 동의 안 함 ☐ 조건부 동의	
특이사항		